

# 강운태·전갑길·이석형 민주당 복당

〈광주 남구 국회의원〉 〈광산구청장〉 〈합평군수〉

내년 지방선거 출마의지를 보여온 무소속의 강운태 의원(광주 남)과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이석형 합평군수 등의 민주당 복당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민주당 내부 경쟁구도의 틀이 형성됐다.

민주당 당원자적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사무총장)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강 의원 등의 복당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민주계 세력의 통합을 통해 정권 탈환의 기회를 다지는 차원에서 복당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전 청장 등의 복당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

쳐야 하나 당 지도부가 이들의 복당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이들의 민주당 당적 회복은 확정적이다.

강 의원과 전 청장은 광주시장 후보, 이 군수는 전남지사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들로 이 가운데 일부는 벌써 선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민주당 복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벌이는 전초전인 민주당 경선 구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박광대 현 광주시장의 독주체제에서 양강 구도 또는 2강 2중 체제로 변화될 여지가 많다. 최근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조짐은 그대로 나타났다. 박 시장과 강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전 청장과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를 추격하는 양상으로 지지도가 조사된 것이다. 따라서 강 의원과 전 청장의 복당으로 광주시장 경선전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군소 후보와의 단일화 등 변수도 등장하게 됐다.

전남지사 후보 경선의 경우 이 군수의 가세로 박준영 현 전남지사와 재선의 주승용 의원의 양자구도에서 3자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이 역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입증된 바 있다.

## “결격 사유 없고 민주 세력 통합 위해” 심사위 통과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 구도 요동

문제는 이 군수의 복당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 지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 전남 동부와 서부 간 지역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박 지사 대 주 의원의 경쟁구도에 서부지역인 합평 군수출신의 경선 참여는 서부지역 민심을 양분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이 군수가 향후 3개월 이내에 3강 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2강 1중 체제에 머무른다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임할 가능성도 있어 이 군수의 향후 행보가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구도에 있어 큰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광주 남구청장 및 광주시의원, 남구 의원 등 후보 경선 구도도 크게 요동칠 것

으로 보인다. 현 이윤정 지역위원장 측 인사 위주로 꾸려진 경선 구도가 남구청장 경선을 노리고 있는 유동국 보좌관 등 강 의원 측근들의 가세로 복잡하게 얽힐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 의원이 지역위원장 자리까지 맡게될 경우 그 변화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든가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오는 10월 초 ‘추석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이들 후보군들의 3개월간 걸친 민심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 의원이 복당 되면 민주당 의석은 85석으로 늘어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노사(勞使)와 노경(勞經)의 차이



장필수

경제부 차장

#1. 지난 달 24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주종합터미널) 2층 회의실, 금호고속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산 사장과 박석길 노조 위원장이 '2009년 임금협상안'에 사인을 하자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1947년 회사 창립 이후 한 번도 파업을 하지 않은 '63년째 무분규 사업장'의 역사를 썼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상생협력선언'도 채택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2. 지난 달 29일 오전 10시30분 기아차 광주공장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파업을 가결한 노조가 파업 선포식을 갖고 주·야간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로써 기아차는 1991년 이후 19년째 한해 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하는 사업장이란 불명예에 역사를 이어갔다. 공장 한편에선 노조가 기자를 상대로 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열을 올렸고, 다른 한편에선 사측이 보도자료 배포하고 질책을 무시한 불협파업이라며 노조측을 비난했다.

5일 간격을 두고 광주를 대표하는 두 사업장에서 벌어진 모습은 우리나라 노사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만하다.

'63년 무분규 사업장'과 '19년 연속파업 사업장'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해답은 두 회사의 노사협상 과정을 들여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양보'와 '타협'이란 단어를 택한 쪽은 분규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고 '불신'과 '반목'을 협상 테이블에 가지고 나온 쪽은 만성 파업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금호고속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자며 임원들이 연봉 10%를 자진 반납하자 노조가 임금협약을 사측에 위임했다.

반면 기아차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을 놓고 노사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다. 노조측은 현행 주야간 10시간씩 작업하는 근무형태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해 8시간씩 작업하는 대신 줄어든 작업시간만큼 줄게 되는 급여를 월급제로 보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그럴 경우 지출되는 돈은 같은데 생산량은 줄게 돼 체산성이 떨어진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상대측의 말이 귀 기울이지 않는 일방 통행식 주장이 파업을 낳은 직접 원인이었다.

하지만 무분규와 파업 사업장을 가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와 노조를 노사(勞使)문제라 볼 것인지 노경(勞經)문제라 볼 것인지에 달려있다. 기아차처럼 법밖쪽 파업을 하는 기업은 '근로자와 고용주'라는 대립적 노사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금호고속같은 기업에는 '근로자와 경영자'라는 상생의 기업문화가 있다. "우리회사에서는 노사라는 말 대신 노경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수평적, 동반자적' 의미가 강한 노경이란 단어를 사용하다보니 노사간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 금호고속 김성산 사장의 말을 되새겨 볼 시점이다.

/\*bungy@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軍비행장 소음 대책’ 여야 한목소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심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에 공동 대응기로 했다.



2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에 따르면 도심에 공군 비행장이 있는 광주와 대구,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음 피해 구제와 이전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군용 비행장 이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기로 하고, 이날 첫 준비모임을 가졌다.

#### 부당하고 신고센터 가동

○--민주당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 점검단장인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사진)은 2일 공공



기관 해고 납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를 받기 위해 당내에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농협 등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한 기관을 방문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 의원은 앞으로 ▲비정규직 법의 확대 시행에 따른 노동 현장 영향 평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비정규직 고용 안정 강화 대책 마련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 등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 한나라 광주서 결속 다져

○--한나라당 광주시·전남도당이 광주서 국정보고대회를 갖고 결속을 다졌다. <사진>

한나라당 시·도당은 2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당사에서 박재순 최고위원, 심규철 제2사무부총장, 남경필·정병국 의원을 비롯해 김태욱 시장위원장, 김기홍 도당 위원장, 핵심당직자,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보고대회를 개최했다.

#### ‘수유 공간...’ 조례안 관심

○--광주 북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구청사 내 모유 수유 공간 의무 설치를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마련해 관심이 일고 있다.

북구의회 김상훈 의원(무소속·북구 마)이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연말까지 북구청 청사와 보건소에 수유 공간을 설치해야 하고, 동 주민 센터와 구청 산하 사업소 등은 신축이나 개축·증축 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3일 개최하는 제165회 정례회 때 발의, 심의하게 된다.

/\*박지경·박정욱기자 jkpark@



#### 화순 독감백신 공장 준공

(주)독심자 화순 독감백신 생산공장 준공식이 2일 오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의약산업단지에서 열렸다. 최인기, 강기정 국회의원 및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해 허일섭 독심자 부회장 등이 준공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 3차 개성회담 이번에도 ‘빈손’

### 北 5억달러 집착...남북 입장차 못 좁혀

북한이 2일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 달라는 요구에 집착함에 따라 남북 당국간 대화가 성과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 달라는 요구를 고수하면서 여류 근로자 유무세 문제를 포함한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논의를 거부했다. 우리측도 토지임대료 인상 등 기존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양측은 논의의 접점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토지임대료 등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뒤로 미루고 개성공단 축소,타아소 건설 등 인프라 구축과 통행제한 해제 등 상대적으로 쉬운 의제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웠다.

100일 가까이 여류현 현대자산 주재원 유모씨의 석방은 계속 촉구하되 공단 발전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은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회담에 임했던 것이다.

특히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제2차 개성회담에서 북측이 작년 12월부터 취해온 개성공단 통행 제한을 해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5억달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의제는 협의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개성공단의 기상은 다시 '흐림'으로 바뀐 양상이다. 정부는 북측의 '5억달러'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협상 시한을 못 박진 않음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에 따라 향후 '5억달러'에 대한 우리 측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언제든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정부와 입주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아무도 믿지 말고 한빛고시학원만 따브라!! 79#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www.hanbitgosi.co.kr

**중앙선관위** 2009. 11. 22. 시험일 변경! **수석합격자 배출!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안정기 박사 (특수교육) 김성은 강사 (특수교육) **특별초빙!**

**최종공무원 면접무료특강**

= 7월 3일 오전 10시 국가직/지방직 합격대비 리아실 =

**종합반 하루 9시간 강의** 행정직/재무직/검정직/법원직/소방직/공무원시험/사법시험/법률직/기술직/검정직

민원/주거/민생/민정고의 합격시스템/문제풀이 6.25 공무원/지방직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입 234-0234

www.kimyoung.com  
10명중 7명 합격률  
**현업영어 합격강좌**  
상위권대학 전문대입반 TOP-CLASS  
www.kimyoung.com